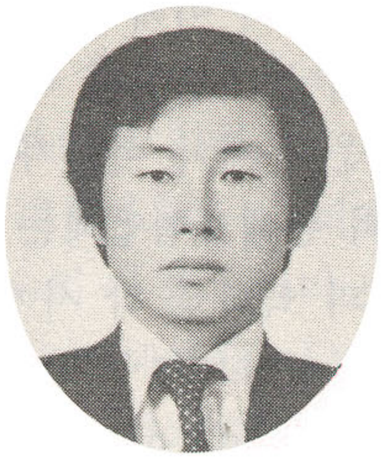
훌륭한 시험소를 갖게 된데 자부심 느껴



심 응 권
대한화재·화재특종부장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4월 11일 개설된 방재시험소는 보험업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계에 대하여도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원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였고 그에 비례해서 인류는 자연적인 재해 위험에 더하여 인위적인 재해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인류는 여러 방면으로 투쟁하여 왔다. 재해복구 시설인 보험산업과 재해예방시설인 방재산업은 바로 이와 같은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인간 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입된 보험은 이제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 시설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방재산업 분야는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보험업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의 방재산업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시험소 설립은 우리업계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평소 화재특종부장으로서 방재시험소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 그러던 차 이번에 화협의 배려로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퍽 다행한 일이었다. 시험소에 도착해 보니 위치 선정도 참 좋았고, 아담하고 깨끗한 현대식 건물이라든지 최첨단의 시험 설비 및 기구들이 매우 흥미로왔으며 이만하면 아주 훌륭한 연구 분위기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종사원들도 모두 진지하고 열성적인 태도였으며 아주 전문화되어 있었다.

우리도 이제 이런 훌륭한 방재연구기관을 갖게된 데 대해서 보험업계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방재시설 및 기구의 시험에 중점을 두겠지만 앞으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산업의 방재 분야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방재산업의 독자적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힘찬 출발을 시작한 방재시험소가 우리나라 보험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방문중 생각났던 몇가지 바람들을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위험관리 측면이다. 솔직이 말해서 우리 업계의 risk management분야는 아직 미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었으며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보험산업에 있어서 risk management 는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나 보험의 경영수지 면에서나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재 시험소는 업계를 위해서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험업무의 보완역으로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양질의 위험관리 용역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번째는 방재 전문지식 또는 최신 방재 정보의 보급이다. 시험소는 업계에 방재지식 및 위험관리 기술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험해 나갔으면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업계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든가 주요 부보물건에 대하여 위험 측정 실습등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 요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기 바란다.

세째로 국내 보유 증대를 위한 위험측정 및 보유 기술 분야도 독자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 중요 부보물건에 대한 권위있고 정확한 위험진단 및 PML 측정등으로 국내 보유의 적정화 내지는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보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방재시험소를 잘 활용함으로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